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업과 아이디어 발굴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8일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로얄캐닌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미국 마즈(MARS) 그룹 소속으로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분야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새만금 인근 김제 지평선 산단에서 아시아태평양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인도 등 8개 국가에 수출하여, 2022년에는 무역협회로부터 "1억불 수출의 탑" 상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3,4 생산라인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수출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IS 식품산업통계정보('24년 6월)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가구 증가로, 2010년 0.4조원

에서 2022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2.8% 급성장하였으며, 2028년은 2.5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서 로얄캐닌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수출 확대 및 증설 계획과 새만금 식품허브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농생명 연구 인프라와 농생명용지 등을 바탕으로, 건설 중인 신항만, 신공항의 기반시설을 활용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같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세계적인 식품가공특화무역기지를 구축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6년 2선석이 개항되는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 등을 수출입 물류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상에 신항만은 항만경제특구로, 신공항은 공항경제특구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배후를 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발전시켜 대중국 식품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권역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등 40여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 국내 최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농생명식품 연구개발에 최적지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주력사업으로 새만금 3대 허브로서 첨단산업허브, 관광마이스허브, 그리고 식품허브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담부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올해 농식품·항만물류·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42명으로 새만금 식품허브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식품허브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산업 가치사슬에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을 선도적으로 유치하고,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 등을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략적인 새만금 식품허브 구상을 위해 농업분야 세계 1위 대학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푸드바이오연구소와 서울대, 세종대 등과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5월에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식품허브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당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네덜란드 연구진은 "새만금은 식품허브로서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며, 어떤 글로벌 기업이 실제적인 투자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만호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주요부서 전략담당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aT 비전추진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의 미래 역할과 추석 물가안정 등 현안 사항을 두루 논의했다.

aT, 신임 CEO-비전추진단 간담회

홍문표 사장, aT 미래 역할 · 추석 물가안정 등 두루 살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주요부서 전략담당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aT 비전추진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의 미래 역할과 추석 물가안정 등 현안 사항을 두루 논의했다.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14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간담회에서 홍문표 사장은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라는 신념하에 △농수산식품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과 저탄소 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 미래 역할 방향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면서 관련 비용 조사, 비축물자 방출 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홍문표 사장은 "aT의 미래 역할 방향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좋아하는 aT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만호기자

전주상의, 인사 · 노무 등 4대 보험 실무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기법 기초지식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처리실무에 따른 세무신고 관리 등 자격취득·상실신고부터 정산업무까지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새롭게 변경된 노동법에 대한 이슈와 흔히 놓치기 쉬운 임직원 급여관리 및 기업 리스크에 대한 최소화 전략 등 인건비 관리 효율성을 위한 세무와 노무관계에 도내 임직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가루쌀 소비 촉진 도모 급식 관계자 의견 들어

식량과학원서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형급식 현장 활용 공동 연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8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형급식 현장 활용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연수에는 전북혁신도시 내 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사 등 관계자 약 20명과 가루쌀 국민디자인단이 참석해 최근 식품업계에서 새로운 쌀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가루쌀 품종 및 가공 제품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급식 적용 방안과 정보를 교류했다.

1부에는 가루쌀 품종과 다양한 가공 제품을 소개하고, 쌀 빻기 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부에서는 가루쌀을 활용해 구성한 급식 차림표(메뉴) 소개와 이를 적용한 건강 식단관리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전북혁신도시 내 기관 급식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가루쌀과 가공 제품을 대형급식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소비 촉진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전략을 주고받았다.

국립식량과학원 안선미 영양사는 "가루쌀 부침가루로 김치전을 만들면, 모양이 잘 유지되고 배식이 끝날 때까지도 전 특유의 바삭함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집 영양사들은 "요즘은 가정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좌우될 정도다"며 "가루쌀로 만든 음식이 차츰 익숙해지면 가루쌀을 소비하는 주된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환경청, 농업거버넌스 활성화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8일 부안군 소재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새만금유역 농업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2차년도 거버넌스 참여마을 리더 및 지자체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및 현장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비점오염관리에 대한 행정단위 이해도 제고 및 분야별 협업을 위해 환경뿐만 아니라 농업·축산 분야까지 한자리에 모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사업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유역은 2013년도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BOD 85.7%, T-P 90.7%로 농경지가 많은 유역 특성상 농업 및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저출생 · 지방 인구 소멸 문제 대응 전략 강구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저출생 및 지방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공사의 역할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사내 제안 공모의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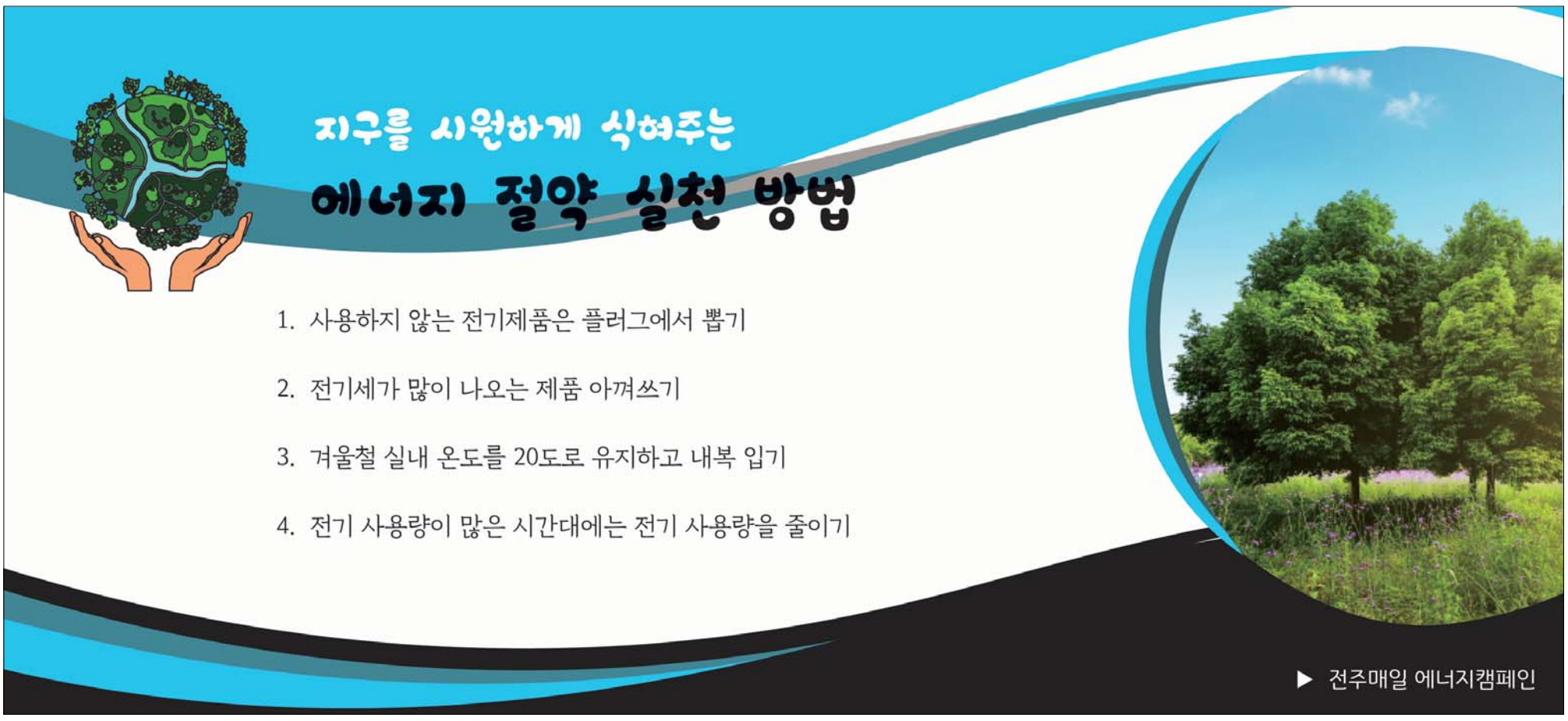
이번 사내공모는 저출생 및 지방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실행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적합성, 계속성 등 5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 선정된 5편의 수상작은 저출생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1등작 '아이 참 Happy'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방안과,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혜택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2등작 '출산 인프라 취약지역 공공산후 케어센터 대행 건립'은 전북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경감, 신생아 출산 가구 임대주택 주거비 경감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저출생 및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안 건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사 경영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